

전북도민일보 창간 15주년 축하 메시지

전북도민일보의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88년 민주화와 지방화의 염원 속에 출범한 전북도민일보는 도민의 여론을 담아내는 지역사회의 공기(公器)로서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방을 살리는 길이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을 비롯한 3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전하고자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지방 스스로의 전략과 열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화는 지방 스스로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대학, 언론을 비롯한 모든 주체들이 함께 비전을 만들고 추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북은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지로 성장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낙

후된 전북을 성장시키는 것은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전북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전북도민일보가 지역발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의제를 설정하고 앞장서 이끌어 나가는 창의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정의와 도민복리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간 15주년을 축하하며 임직원과 애독자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